윤도일 1988년 | 남 | 부산사하구

010-3101-1835 ydoil2000@naver.com

관심직종 개발 | 웹개발 업무 및 스킬 **Eclipse Tomcat** HTML5 CSS3 **Javascript** java mariadb notion 경력사항 신입 • 주식회사에이엘디 2018.04 ~ 2019.04 (1년 1개월) • 와이즈테크 2017.03 ~ 2018.04 (1년 2개월) • 물음피 2014.05 ~ 2023.03 (8년 11개월) 학력사항 동아고등학교 | 고등학교 졸업 |

경력사항

♡ 체크가 있다면 건강보험 이력을 통해 재직 여부가 검증된 경력입니다.

2018.04 ~ 2019.04 주식회사에이엘디 ⊗

1년 1개월

2017.03 ~ 2018.04

와이즈테크 🥝

1년 2개월

2014.05 ~ 2023.03

물음피

8년 11개월

[극 단]

- 최근 5년간 대표 역임 후 사퇴

- 연출, 배우, 작가, 오퍼 등 다방면으로 활동

학력사항

2005.03 ~ 2007.02

동아고등학교

인문계 | 고등학교 졸업

링크

https://github.com/zafylus/TeamProj-KDY-

자기소개

지원 동기

'호랑이 굴 속으로'

제가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을 때 웹 개발을 하는 친구가 '개발을 해보는 건 어떻냐?'고 권유했었습니다. 속는 셈 치고 개발에 관한 정보를 구글링했었습니다. 정보를 모은 뒤 제가 내렸던 결론은 '평생 개발을 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쓰는 언어는 꼭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 AI 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생성형 AI, 자율주행, 창작 등)를 보면 미래에는 많은 업무를 AI가 대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AI 들을 관리하거나, 최소한 AI를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봤었습니다. 방대한 AI 지식을 배우기 위한 입문 단계로 기초적인 개발 언어를 배우기 위해 우선 Java 백앤드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듯이'

훈련과정의 초반 수업 내용이 저에겐 쉬워서 시간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학원에서 내준 과제를 끝내고 틈틈이 코딩테스트 사이트에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어릴 때 수학 문제를 풀 때가 생각났었습니다. 지금 제일 생각이 나는 문제는 피보나치수열입니다. 머릿속으론 이해하는 간단한 개념을 코딩으로 풀어내려니 계속 막혔었습니다. 3일 동안 수첩에 이것저것 적어보며 고민하다가 피보나치수열을 만드는 함수를 짰을 때 그 성취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API를 제작 중에도 맞닥뜨리는 여러 에러와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힘들지만, 그 성취감을 알기에 문제를 붙잡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실무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끈기 있게 풀어나가는 개발자가 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

'세심한 분석을 뒷받침하여,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훈련 과정 중 미니 프로젝트 과제를 할 때입니다. 과제의 내용은 상대방의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제가 분석하여,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이 었습니다.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을 땐 주저 없이 상대방 자리에 찾아가서 질문하고 소통하며 요구사항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완성한 요구사항 분석서와 명세서, 프로토타입을 제출했을 때 강사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읽어 내, 완성도 높게 잘 마무리해내는 것이야말로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도, 회사 일이라면 솔선수범하겠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일입니다. 팀원들 각자가 맡은 분야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3명에서 하는 프로젝트라 팀장이 없어서 소통이 많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다 팀 프로젝트가 아니라 각자의 개인 프로젝트로 끝날 것 같아서 우선 저부터 1차로 다른 팀원의 레이 아웃에 제 서버를 이식했습니다. 그 후 팀원들에게 각자 프로젝트를 하나로 병합해야 하는 필요성을 알렸고, 회의 후에 일정을 정해서 각자의 프로젝트 병합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의 업무에서도 필요한 일이라면 솔선수범해서 일하겠습니다.

성격 및 보유역량

'유연하게 문제에 접근합니다'

교육과정 중 미니 프로젝트로 연습실 예약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각 날짜와 시간마다 예약 여부를 판단하는 코드를 짜야 하는데, 제가 배웠던 지식 내에선 떠오르는 게 없어서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이전 수업 중 달력 클래스를 만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달력 클래스의 날짜 배열을 Map으로 바꿔서 예약 여부를 알 수 있게 고쳤습니다. 더 나아가 시간 예약도 Map으로 추가하고, 그 해 달력을 전부 콘솔에 출력하는 기능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업무를 하며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오류에 있어, 제가 가진 경험과 갖춰나가는 역량을 더해 언제나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제에 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극단에서 '정의' 연극의 연출을 담당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코로나 피해를 줄이고자 정부에서 공연장 공연 금지 권고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극장에서 무대 작업이 한창일 때 극장장으로부터 연락이 와, 정부 권고로 공연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하던 작업을 중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대부분 팀원은 공연을 그만두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당시 대형 기획사들의 뮤지컬 공연이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하는 것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포기하기보단, 우리가 준비한 공연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관련 정부 부서에 연락을 돌리고 대형 기획사들이 어떻게 공연을 올렸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러다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부터 극장 건물의 분류 규정이 달라 규제를 피할 수 있단 말을 들었고, 곧 장 극장장님과 조율하여 공연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코로나 안전 수칙을 지키며,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문제상황에서 그대로 주저앉기보단,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고자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해결 안 될 것은 없단 걸 경험했습니다.

4. 입사 후 포부

'경청하는 삶'

어릴 때의 전 말주변이 없어, 자연스레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 만남에도 늘 경청을 우선으로 해왔습니다. 업무적으로 회의할 때에도 팀원들의 생각을 경청하다 보면 자연스레 결론이 나며 모두가 만족할 만한 답으로 조율해 내곤 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환경에서도 저의 주장만 내세우기보단, 항상 주변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올리겠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기'

발을 공부하면 할수록 공부할 양에 압도될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분야를 공부할 수 없기에, 우선 저는 백앤드 개발자로서 기초가 될 Java 와 SQL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만들 API에서는 안정된 구조로 돌아가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9월에 SQLD 자격증을 응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를 아는 단체의 연습실 대관 API를 만들어 상용 API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또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동화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웹페이지를 구현하면서 같은 작업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도 자동화가 되면 편할 텐데….'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Spring Boot 수업을 듣고 신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설정만 조금 만져주면 MVC 패턴을 어노테이션 몇 개로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향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Spring Boot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Java와 Spring 프레임워크 숙련도를 올릴 예정입니다.

'고객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연극에서 가장 좋아했던 순간은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로비로 나올 때입니다. 그때 관객들이 잘 봤다며 웃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개발자로서 고객이 원하고,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결과물로 인해 사용자의 만족을 끌어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사용자의 만족을 위해 항상 준비하는 자세와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갖춰,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개발자 윤도일이 되겠습니다.